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필기에 대한 인식, 실태 및 필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필기란 넓은 의미에서 “자신의 의도를 시각적 부호인 문자를 사용하여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1]. 필기는 개인에게 고유한 기술로써 일정한 표면 위에 인위적인 그래픽 표지로 구성되며, 무엇인가를 소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이 목적은 그 표지와 언어의 관습적인 연관에 의해 성취된다는 세 가지 근본적인 특징을 갖는다[2]. 이 글에서 필기란 글씨를 쓰는 것, 즉 노트나 필기구를 사용하여 문자를 적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다.

컴퓨터의 보편적 사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기는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발달적 기술로 남아 있다[3]. 역사적으로 필기는 인간의 진화에서 의식을 재구조화하는 도구로써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었다[4]. 쓰는 행위는 모두 말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며[4], 이를 통해 인간은 동물과 달리 강한 기억을 갖게 되었다[5]. 특히 학생들은 학교생활의 31~60%를 필기하는데 보내는 경우도 있어[3] 필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학업성취에 부적인 영향을 받기 쉽다. 따라서 필기 능력의 발달은 학교에서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학생들의 필기는 그 빈도에 있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많은 학교들이 필기 교육에 관심이 없거나 최소한의 시간만 할애하고 있으며[6], 필기교육조차 점차 사라지고 대신 컴퓨터 타이핑 교육을 표준 교육 시간으로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7]. 이는 책을 보고 글쓰기를 중시하던 문자시대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시청각 전자시대로의 사회적 변화에 기인한다[8]. 이런 환경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도 필기보다는 화질 좋은 스마트폰으로 판서 내용을 찍고 이를 후에 출력하는 경우가 늘어나 필기 능력은 점차 쇠퇴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의 측면에서도 필기 자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컴퓨터 등 다른 매체를 이용한 문자 입력 방식과의 비교 연구[9-11]나 특수아동의 글

쓰기에 대한 연구[12] 등이 간헐적으로 수행되었을 뿐이다. 국외에서는 인지능력[13], 학습태도[14], 눈과 손의 협응 운동을 포함한 운동능력, 주의와 기억, 감정[6][15][16]등이 필기 태도에 주는 영향을 연구해 왔으나 국내에서의 필기 실태 및 태도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하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필기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써 중학생의 필기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들의 필기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중학생들의 필기에 대한 인식 및 실태는 어떠한가?

- 1-1. 필기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1-2. 필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1-3. 일반적 필기교육 실태는 어떠한가?
- 1-4. 교과목별 필기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필기 태도에 대하여

- 2-1. 성,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 2-2. 본 연구에서 탐색한 요인들(배경변인, 정서적요인, 신체적요인, 컴퓨터 사용, 한글에 대한 인식) 가운데 어떤 요인이 필기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선행연구

필기에 대한 선행 연구는 크게 필기의 효과에 관한 연구와 필기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필기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필기는 학업성취도, 기억력, 언어능력 그리고 사고력, 집중력, 주의력과 같은 기타 학습에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필기는 학업 성취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HA 초등학교는 2007년부터 사라져 갔던 노트 필기를 다시 장려하여 40명이 넘었던 기초 학력 부진아가 1년 후 1

명으로 줄게 되었다고 한다[17]. 또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16주간 노트 필기 훈련을 실시한 결과 이 훈련이 학습전략, 주의력 및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 그리고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습방법과 수행에 대해 조사한 한 연구에서는 최종 면접에 참여한 6명의 실험 참여자들이 노트 필기를 중요한 학습 전략 중의 하나라고 응답했다[19]. 국외 연구에서도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서 기록하는 집단이 사후 시험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20], 노트 필기를 한 집단이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새로운 정보 연결을 보다 잘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둘째, 필기는 기억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필기는 기억 보조 장치의 한 형태로, 글씨를 쓰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억을 하기 위해 하는 행동인 것이다[8]. Vander와 Pintrich(2007) 연구는 수업시간에 중요한 내용을 필기하는 것이 수업내용을 더 주의 깊게 듣고 향후에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됨을 보여준다[21]. 특히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작업 기억의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필체와 같이 많은 기술을 요하는 능력에 신경을 쓰면 많은 양의 작업 기억이 소모되어 어휘를 선택하거나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즉, 완벽한 문장을 만들거나 글자의 형태 혹은 스타일에 집중을 하면 작업 기억을 상대적으로 많이 소모하게 되어 줄거리와 어휘 같은 능력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는 것이다[16]. 따라서 어린 학생들의 기억력을 높이고 필기를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순서 작업을 통해 한 번에 하나씩 작업을 하고 반복 작업을 통해 문자의 자동성을 높여 작업 기억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22].

셋째, 필기는 언어 능력을 향상시킨다. 학습 초기에는 주로 교사가 정리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베끼는 형태로 필기에 대한 교육이 시작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글자를 익히고 문장을 연습하는 것은 학생들의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하나의 훈련이 되는 것이다[23]. 결국 필기는 손으로 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24].

넷째, 필기는 사고력, 집중력, 주의력과 같은 기타 학

습과도 관련이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40년 넘게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전교생에게 글씨 쓰기를 가르친 결과 학생들이 차분해지고 사고력도 좋아졌다고 한다[26]. 또한 학생들이 학업 기간 동안 일정 정도의 필기 역량을 달성하지 않으면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3]. 그리고 필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더 낮은 수학 성취도와 낮은 언어적 IQ, 그리고 주의집중력 부족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이는 필기 행위가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사고력, 집중력, 주의력과 관련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2. 필기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인간이 자신의 손으로 문자를 쓴다는 것, 즉 필기 행위는 정서적 태도, 신체적 능력, 필기도구, 필기 훈련 여부 등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필기는 손으로 하는 활동을 좋아하는 정서적 태도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즉, 손으로 하는 활동을 좋아하면 필기에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며 필기 기술을 연마하는 데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Feder(2007)의 연구도 손을 사용하는 활동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기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3].

둘째, 필기는 신체적 능력의 영향을 받는데 이는 크게 시지각 능력과 운동 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 필기에 영향을 미치는 시지각 능력은 눈과 손의 협응 운동 능력이다. Cornhill과 Case-smith(1996)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손 조작에 관한 두 가지 시험인 시각 운동 통합 발달 시험(VMI: Visual-Motor Integration)과 미네소타 필기시험(MHT: Minnesota Handwriting Test)을 실시하여 필기가 눈과 손의 협응 운동과 공간 시각적인 통합 능력과 연관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28]. 양영애, 이선명(2006)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시지각 능력과 필기와의 관계를 실험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필기 속도가 향상됨을 관찰하고 이는 아동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시지각과 운동이 통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29]. Bounds(2010)는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손으로 연습을 했던 아이들이 단순히 글자를 쳐다본 아이들보다 신경 활동이 더 어른처럼

향상되었음을 밝히고 있다[6].

필기를 위해서는 손의 힘이나 팔 근육 등의 운동 능력 또한 요구된다. 손과 눈의 협응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각 능력, 신체상, 감각 통합 및 운동 계획에서 공간 개념이 있어야 하며 특히 바른 자세와 정확한 머리의 위치가 중요하다[30]. Thomas(1990)는 필기에 필요한 능력을 큰 운동 기술과 작은 운동 기술 그리고 운동 계획으로 분류하였다[31]. 이 가운데 큰 운동 기술은 앉는 자세와 신체상 협응 운동에 관한 기술로 큰 운동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몸이 안정되지 않고서는 팔과 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작은 운동 기술은 글씨를 쓰기 위해 필기 도구를 효과적으로 쥌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2]에서 재인용).

셋째, 필기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 역시 필기 행위에 영향을 준다. 필기 도구는 글씨의 모양이나 기호의 형성 방식, 필서 방향은 물론 글자의 발전뿐만 아니라 책의 모양에까지 많은 영향을 주었다[8].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도구의 차이는 개인의 사고를 형성하는 태도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5]. 예를 들어, 3, 4, 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연필과 컴퓨터 쓰기에 대한 발달 단계 실험을 실시한 결과 연필을 사용한 경우 발달 단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컴퓨터보다 연필이 유아에게 더 익숙한 도구이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만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컴퓨터, 연필 그리고 유아용 문서 작성기 비교 실험을 실시한 결과, 유아용 문서 작성기를 사용한 집단과 연필을 사용한 집단이 컴퓨터 문서 작성기를 사용한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필기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2].

넷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노트 필기의 경우는 특히 훈련 여부가 필기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박한숙(2002)의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노트 필기의 중요성과 수업 전후로 해야 할 일, 요약하기, 약어와 같은 다양한 노트 필기 기술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학업 성적과 학습 기술의 측면에서 노트 필기 훈련을 받은 학생들의 집중력이 향상되었음을 관찰하였다[33]. Armbruster(2000) 연구에서는 미국 학생의 94%, 외국 학생의 92%가 노트 기

록을 중요한 인지 전략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기 전략은 학습 내용과 학습자의 사전 지식을 연결하여 학습 효과를 증대시키는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34].

다섯째, 필기는 언어와 밀접한 영향을 갖는다. 즉, 필기는 언어를 기록한다는 특성을 지니므로[2], 필기자의 언어에 대한 태도는 필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된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언어에 대한 태도가 필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한글에 대한 인식 문항을 설문에 포함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서울, 인천 소재 9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들의 지인을 통한 방식으로 섭외된 4개 학원(198명, 57.2%)과 1개 중학교(148명, 42.8%)에서 참여한 346명의 학생들이었다. 이 학생들의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21명(35.0%), 2학년 140명(40.5%), 3학년 81명(23.4%)이었으며(미기재, 4명, 1.2%), 성별 분포는 남학생 172명(49.7%), 여학생 172명(49.7%)이었다(미기재, 2명, 0.6%).

인터뷰 조사에는 설문에 참여한 학생 가운데 성별, 학년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년별 남녀 2명씩 추출하여 모두 12명이 참여하였다. 인터뷰는 주저자가 근무하는 학원의 상담실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생당 20분 내외가 소요되었다.

2. 연구 도구

설문지 개발은 필기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육학, 심리학 전문가 2인과의 협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는 응답자의 배경 및 현황, 필기에 대한 태도, 정서적 요인, 신체적 요인, 컴퓨터 사용현황, 한글 인식에 관한 문항 등 총 38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태도는 행동적, 인지적, 잠재적의 세 요인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35] 본 논문에서는 감정-인지성분의 분할모형을 고려

하여[36] 감정적 측면에서 필기에 관련된 행위를 좋아하고 인지적 측면에서 필기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으로 필기에 대한 태도를 정의하였다. [표 2]는 설문 문항 및 주요 변인들의 척도 및 신뢰도 계수를 보여준다.

인터뷰는 두 가지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하나는 연구 문제에서 제기한 필기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 인식을 학생들의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설문 문항 작성 이전에 필기에 대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인터뷰 문항은 주로 필기의 필요성 및 필체 및 기타 필기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이었다[표 1].

표 1. 인터뷰 질문들

주제	질문 예시
필기의 필요성	1. 생활하면서 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필요하다면 왜? 아니라면 왜 아닌가요? 2. 수업시간에 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필요하다면 왜? 아니라면 왜 아닌가요?
필체 및 기타 사항	3. 자신의 필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만족한다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불만족한다면, 어떤 점이 어려운가요? 4. 노트 필기를 잘하는 편인가요? - 잘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서 잘하게 되었나요?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점이 어려운가요? 5. 필기를 잘하고 싶나요? 6. 주변 친구들은 필기를 잘하나요?

표 2. 설문 문항별 내용

범주	설문 내용	척도 (신뢰도계수)
인식 및 상태	최초 필기 교육 실시자는 누구	보기 제시
	자신의 필체에 대한 만족도	5점 척도
	친구의 필기에 대한 평가	5점 척도
	필기도구 사용법 교육	없다/있다
	노트 필기 방법에 대한 교육	없다/있다
	가장 많이 필기하는 과목	보기 제시
필기 태도	가장 적게 필기하는 과목	보기 제시
	· 나는 글씨쓰기를 좋아한다	5점 척도 ($\alpha = .873$)
	· 미래에도 글씨쓰기는 중요하다	
	· 글씨를 더 잘 쓰고 싶다	
	· 손으로 글씨 쓰는 능력은 중요하다	
	· 글씨 잘 쓰는 사람이 부럽다	
	· 필기가 수업시간에 도움이 된다	
	· 필기가 기억에 도움이 된다	
	· 수업시간에 필기가 필요하다	
	· 필기를 하면 학습하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 필기도구 사는 것을 좋아한다		
정서적	· 나는 손으로 만드는 활동을 좋아한다	5점 척도

요인	· 나는 그림그리기를 좋아한다 · 나는 낙서하기를 좋아한다	($\alpha = .781$)
신체적 요인	· 나는 신체활동을 좋아한다 · 나는 기억력이 좋다 · 나는 시력이 좋다 · 나는 손 힘을 잘 조절할 수 있다	5점 척도 ($\alpha = .570$)
컴퓨터 사용	하루 평균 컴퓨터 사용 시간	분
한글 인식	· 나는 한글을 사랑한다 · 나는 한글이 자랑스럽다 · 나는 한글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5점 척도 ($\alpha = .914$)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3년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사회과학분야 연구윤리 심사(IRB)를 받은 후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실시에 앞서 설문 대상자들에게 연구 실시 목적, 제공되는 보상, 개인 정보 보호 등을 명시한 문서를 제공한 후 연구 대상자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에는 인구학적인 질문(성별, 학년, 학교) 이외에 개인 식별이 가능한 질문은 없었고 연구 참여는 모두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였다.

4. 자료 분석

인터뷰 자료는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모두 녹취되었고 이후 전사, 코딩, 주제 발견의 세 과정을 통해 분석되었다[37]. 전사와 코딩은 주저자 1인이 일관성 있게 진행하였으며, 주제 발견은 코딩된 자료를 토대로 그 내용의 강도(intensity)와 특이성(specialty)을 고려하여 두 저자가 함께 논의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수가 많지 않고 응답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저자들은 주로 “큰 아이디어”(big ideas)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였다[38].

설문 자료는 SPSS 19.0 버전을 이용하여 연구 질문을 고려하여 빈도분석, t-test, 일원변량분석, 교차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연구 결과는 인터뷰와 설문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 문제 순으로 제시하였다.

1. 필기 인식 및 실태 분석

1-1. 필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인터뷰 질문 가운데 가장 주된 내용은 필기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었다. 필기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은 일상생활에서의 필요성과 수업시간 노트 필기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되었다. 12명의 인터뷰 대상자 중 10명의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도 필기는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 이유로는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3학년 한 여학생의 경우에는 필기를 잘하면 타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고, 필기가 인정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수업 시간의 필기에 대해서도 다수의 학생들이 필요한 활동이라고 응답하였으나 필요하지 않다는 소수의 의견도 개진되었다. 필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로 “암기와 요약 정리를 위해서”, “수행평가 때문에”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 응답들은 “공부하는 내용이 한눈에 잘 들어올 것 같아요”, “필기를 잘하면 요약이 잘돼요”, “수업하고 복습할 때나 잊어버려서 생각이 안날 때 필기한 노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등으로 표현 되었다. 특히 암기를 위해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더 정확하게 외울 수 있어서”, “교과서 본문을 외우면서 뜻 해석을 할 때 유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복습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고, 필기에서 시험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필기를 해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수업 시간의 필기에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자신의 동기보다는 외적인 동기에 의해서 필기를 강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수행 평가 때문에 검사를 받기 위해서 필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 가운데는 필기를 미뤘다가 평가 받기 전에 한꺼번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필기에 대해 부정적인 학생들은 필기를 대체할 수 있는 도구로써 암기, 녹음, 사진 찍기, 핸드폰 메모, 컴퓨터 문서 작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표 3]은 학습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시간 필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수업시간 필기의 필요성

	내용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억이 잘나요. · 요약이 잘 돼요. · 요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나중에 쉽게 볼 수 있어요. · 공부 할 때 도움이 돼요. · 시험 공부할 때 필요해요. · 중요한 걸 잘 안 까먹고 암기가 잘 돼요.
부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평가, 노트 검사 때문에 · 별로 필요 없지만 검사하니까 해요. · 좋아하진 않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 선생님이 지시하는 것만 해요 · 필이 아파서 하기 싫어요. · 필기를 안 해도 기억할 수 있어요.

특히,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 가운데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스스로 필기 하는 빈도가 낮았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필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맞는 노트 필기 방법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1-2. 필체에 대한 인식

자신의 필체에 관해서는 인터뷰 참여자 12명 가운데 7명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가운데 4명은 평소 자신의 필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필기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필기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필체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필체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만족도의 평균은 3.04(표준편차 1.20, n=346)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한 친구의 필기에 대해서는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점수(평균=3.16, 표준편차=1.04, n=346)를 주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은 필기를 잘하는 것을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필기를 잘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필기도 못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다. 학생들에게 있어 필기를 잘한다는 것은 “내용이 섞이지 않고”, “줄을 잘 맞추고”, “그림이나 표를 사용하여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적어서 내용 요약과 정리를 잘하는 것” 등을 의미했다. 또한 필기의 양이 많고 필체가 좋은 것도 주변 친구들이 필기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의 필기를 낮게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로 “글씨를 너무 뻑뻑하게 써서 알아보기 어려워요”, “산만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성격이 이상해서”, “필기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등이 언급되었다.

1-3. 일반적 필기교육 실태

필기교육의 실태는 두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필기를 누구로부터 처음 배웠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어린이집 선생님’(12.4%)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표 4].

표 4. 최초 필기 교육 실시자

	빈도	%
어머니	158	45.7
아버지	21	6.1
부모님 외 가족	39	11.3
어린이집 선생님	43	12.4
유치원 선생님	25	7.2
학원 선생님	6	1.7
학교 선생님	8	2.3
결측	46	13.3
합계	346	100

두 번째는 노트 필기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경험에 관한 것이었다. 학년별 교차분석 결과 결측 8명을 제외한 338명 가운데 전체 학생의 절반 정도(49.7%)가 노트 필기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노트 필기 방법 교육 경험

	없다	있다	전체
1학년	48(14.2%)	70(20.7%)	118(34.9%)
2학년	75(22.2%)	64(18.9%)	139(41.1%)
3학년	45(13.3%)	36(10.7%)	81(24.0%)
합계	168(49.7%)	170(50.3%)	338(100%)

1-4. 교과목별 필기 실태

학생들이 필기를 얼마나 충실히 하는가, 즉 필기 충실도는 학교 수업시간과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 주도 학습시간, 평상시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수업 시간의 경우는 과목별로 필기 충실도를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필기 충실도는 ‘전혀 못한다’(1점)에서 ‘매우 잘한다’(5점)의 5점 척도에서 평균 3.32(표준편차 1.06)로 자기주도 시간 평균 3.22(표준편차 1.15), 평상시 평균 2.65(표준편차 1.04)보다 높게 나타났다.

필기 충실도를 교과목별로 빈도분석 한 결과 수학(25.1%)과 국어(22.8%)가 필기를 가장 많이 하는 수업으로 나타났다. 필기를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수업으로는 응답 학생의 29.8%가 미술 시간을 꼽았고 음악(12.7%), 기술가정(9.0%)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이 과목들의 경우 실습과 직접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6. 교과목별 필기 충실도

	가장 많이 하는 수업		가장 적게 하는 수업	
	빈도	%	빈도	%
국어	79	22.8	15	4.3
영어	44	12.7	18	5.2
수학	87	25.1	28	8.1
과학	28	8.1	29	8.4
사회	27	7.8	11	3.2
한문	4	1.2	20	5.8
음악	2	.6	44	12.7
기술가정	43	12.4	31	9.0
도덕	6	1.7	23	6.6
미술	-	-	103	29.8
제2외국어	-	-	4	1.2
결측	26	7.5	20	5.8
합계	346	100	346	100

2. 필기 태도 분석

2-1. 성별, 학년별 필기 태도 차이분석

성별, 학년별로 학생들의 필기에 대한 태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 성별 태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 남학생의 태도 평균이 32.66(SD=8.30)으로 여학생의 평균 36.11(SD=7.26)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t=-4.066, p<.001$).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필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7. 성별 필기에 대한 태도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남자	167	32.66	8.30	-4.066***
여자	171	36.11	7.26	
합계	338	34.41	7.97	

*** p<.001

[표 8]은 필기 태도에 대한 학년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1학년(평균 36.39)에서 2학년(평균 33.60), 3학년(평균 33.03)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평균 점수가 낮아져 필기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5.679, p<.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이 학년별 차이는 1학년과 2학년(평균차 2.79, $p<.05$) 그리고 1학년과 3학년 사이의 차이(평균차 3.36, $p<.05$)에서 유의미했으나 2학년과 3학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평균차 .57, $p=.876$). 즉, 필기에 대한 학년별 태도의 경우 1학년 집단이 2, 3학년 집단보다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8. 학년별 필기에 대한 태도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1학년	118	36.39	8.03	5.679**
2학년	139	33.60	7.79	
3학년	79	33.03	7.81	
합계	336	34.44	7.99	

** p<.01

2-2. 필기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학생의 필기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기 태도 점수를 종속 변인으로, 성, 학년, 정서적 요인, 신체적 요인, 컴퓨터 사용 시간, 한글 인식을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투입된 변인들이 필기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므로 모든 변인을 투입하여 유의미하지 않은 변인을 제거하는 입력(Enter)을 분석방법으로 선택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 도출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F=14.331, p<.000$) 이 모형의 설명량은 21.9%였다.

분석 결과, 성, 학년, 정서적 요인, 신체적 요인, 컴퓨터 사용 시간, 한글에 대한 인식 변인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필기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베타(β) 값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리고 1학년이 2, 3학년보다 필기 태도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요인은 손으로 하는 활동, 그림 그리기, 낙서하기 등을 좋아하는 정도를 나

타하는데 이러한 정서적 요인 점수가 높을수록 필기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또한 기억력, 시력, 손의 힘과 같은 신체적 요인 점수가 높은 것도 필기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사용 시간은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을 측정한 것으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할수록 필기태도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에 대한 인식은 한글을 얼마나 자랑스럽고, 사랑하며,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로 측정되었으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필기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필기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B	표준오차	β	t
(상수)	18.752	3.245		5.779***
성별	2.964	.904	.183	3.281**
학년	-1.843	.534	-.176	-3.450**
정서적 요인	.339	.133	.137	2.540*
신체적 요인	.411	.148	.157	2.784**
컴퓨터 사용 시간	-.013	.004	-.170	-3.172**
한글 인식	.577	.171	.178	3.368**
모형요약	$R^2=.219$		$F=14.331$	

* p<.05, ** p<.01, *** p<.001

V. 논 의

본 연구 결과는 중학생의 필기에 대한 인식, 실태, 태도에 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필기 교육 및 이 주제에 관한 연구에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제공한다. 첫째, 중학생들에게 필기란 일상생활보다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노트 필기로 인식되고 있었다. 노트 필기란 수업 중 제시되는 수업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기록해 놓은 것으로 책과 문서를 보거나 사진 자료 동영상 등을 보면서 요약하고 정리하는 전반적인 학습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39].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 절반 정도(49.7%)가 노트 필기를 배운 적이 없었으며 인터뷰에 응한 다수의 학생들은 판서 내용을 그대로 필기하기 보다는 수업 내용을 스스로 요약, 정리하는 방식에 대하여 배우고자 하는 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필기가 수업 후에도 내용을 기억할 때 중요한 매체가 되며 시험을 대비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40].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수업 전, 중, 후 노트 필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과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학업 성취도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41].

둘째, 수업 시간 필기의 경우 교과목과 교사의 교수 방식에 따라 필기 충실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목 가운데는 수학과 국어 시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필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기 활동은 주로 교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업 시간의 필기는 교사가 중요한 내용을 적으라고 지시하고, 검사하고, 수행평가 점수에 이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 자신의 내적 동기가 아닌 교사나 평가에 의해 강요된 필기 행위는 장기적으로 필기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필기는 수업 시간에 제공받는 정보를 기록하여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일종의 인지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42]. 따라서 필기를 하는 것은 교과서, 노트를 반복해서 보는 것을 포함하며[43], 이러한 반복은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학업 성취를 가져 오는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필기를 강요하거나 평가 도구로 사용하기보다는 필기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메타 인지적 교육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필체에 대한 만족도가 필기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에 참여한 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필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본인의 필기가 만족스럽지 못한 주된 이유는 필체에 대한 불만족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필체를 교정하고 필기를 잘 하기 위해 필기교육을 받고 싶은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필체나 손으로 글씨를 쓰는 습관 등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7] 필기 교육은 가정과 학교에서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필기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성차도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필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 중학생이 남자 중학생에 비해 필기에 대한 인식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44]의 결과와 일

맥상통한다. Feder(2007)의 연구에서도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필기의 질이 더 낮고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2].

필기에 있어 성차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 듯하다. 우선, 글쓰기 효능감이나 경쟁적 노력 요인, 협력적 상호작용에서 여학생의 글쓰기 동기가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5]. 또한 학생들에게 있어 필기 도구는 쓰기에 대한 동기를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는데[46] 본 연구의 인터뷰에서 여학생들의 필기 도구나 노트 필기 정리에 대한 관심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필기에 대한 동기가 남학생보다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학년 변인 역시 필기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1학년보다 2, 3학년이 필기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학년별 차이는 고학년이 될수록 수행평가 및 필기 검사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1학년의 경우 필기가 재미있다는 응답이 있었는데 2, 3학년의 경우에는 수행평가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드러내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그러나 아직 필기에 관한 연령 혹은 학년별 차이에 관한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선행 연구들은 필기에 관한 연구보다는 쓰기(writing)나 작문(composing)에 관한 주제를 더 많이 다루고 있다. 쓰기의 경우에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수록, 중·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쓰기에 대한 의지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7][48]. 필기와 쓰기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보아 학생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글씨를 쓰는 행위에 대하여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본 연구는 만들기, 그림 그리기, 낙서하기 등 손으로 하는 활동을 좋아하는 정서적 요인과 기억력, 손, 눈 협응 운동, 시력 등의 신체적 요인이 모두 필기 태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정서는 감정적인 영역으로 대상에 대하여 좋다, 싫다, 혹은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49]. 낙서나 그림 등 손으로 하는 활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경우, 필기를 할 때 손의 힘이나 자세, 눈과 손의 협응 운동 능력 등의 훈련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필기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Cornhill(1996)의 연구도 눈-손 협응 운동과 손의 힘 조절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필기를 더 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28].

일곱째, 컴퓨터 사용시간이 필기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전자 매체와 몸을 사용한 행위 간의 연관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4-5세 유아의 경우 컴퓨터를 활용할 때 글쓰기에 더 많은 흥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2]. 이는 컴퓨터를 활용할 경우 매체 자체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 연필을 사용할 때보다 글쓰기에 더 집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연필보다는 컴퓨터 사용을 선호하였고, 편지지에 쓰는 것보다 이메일 작성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6]. 이는 유아나 초등학생의 경우, 연필보다는 더 다양한 감각적 자극을 제공하는 컴퓨터 매체에 대한 호기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컴퓨터나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면 우리의 뇌는 더욱 산만해지고 지속적인 집중이 불가능해진다[5]. 이는 장기적으로 기억력, 집중력, 언어능력이 함께 요구되는 필기 행위를 기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사용 시간과 필기에 대한 태도는 부적인 관련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여덟째, 한글에 대한 인식과 중학생의 필기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필기가 자신의 의도를 시각적 부호인 문자로 생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성공적인 필기를 위해서는 언어 능력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3]. 또한 필기는 민족과 언어에 따라 개인적인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므로[50] 한글을 사용하는 집단과 다른 문자를 사용하는 집단과는 필기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글은 하나의 음운적 표상으로 다양한 철자를 표현할 수 있고 철자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언어의 정서법을 반영해야 한다[51]. 따라서 향후에는 한글에 대한 학생들의 정서 및 태도와 필기의 연관성에 관한 심층적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I. 결론

본 연구 결과는 컴퓨터를 비롯한 기계에 의존한 쓰기 문화가 팽배한 시점에서 손이라는 몸 매체를 사용한 문자 기록 방식인 필기 행위의 실태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는 중학생의 필기에 대한 인식, 실태 및 태도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향후 학교교육에서 필기 지도 및 교육 프로그램 고안 시 실천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중학생들은 수동적으로 필기를 하고 있으며 필기 행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기가 학생들의 인지, 기억, 학습에 중요한 활동이라면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필기매체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필기를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타의 조사연구와 마찬가지로 측정 도구 및 오차의 문제, 표집의 대표성 등의 이유로 연구 결과를 한국의 중학생 전체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학생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별로 필기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필기가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1] 이광오, "한글 필기행동의 연구",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발표 논문집, Vol.3, pp139-146, 1991.
- [2] R. Plamondon and S. Srihari, "On-line and off-line handwriting recognition: A comprehensive survey,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Vol.22, No.1, pp.63-84, 2000.
- [3] P. Feder and A. Majnemer, "Handwriting

- development, competency, and intervention,” *Developmental Medicine & Child Neurology*, Vol.49, pp.312-317, 2007.
- [4] W. Ong, *구술문화와 문자문화[Orality and Literacy]*, 이기우, 임명진 역, 서울: 문예출판사, (원전은 1982에 출판), 2003.
- [5] Nicholas Carr,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The shallows]*, 최지향 역, 서울: 청림출판, (원전은 2010에 출판), 2012.
- [6] G. Bounds, “How handwriting trains the brain,” *Journal of The wall street*, 2010.
- [7] 정영희, *뇌를 자극하는 손글씨의 힘*, 한살림사람들, 121, 2012.
- [8] Albertine Gaur, *문자의 역사[A history of writing]*, 강동일 역, 서울: 새날, 1995.
- [9] 김영실, 함은숙, 김용립, “연령에 따른 유아의 컴퓨터쓰기와 연필쓰기”, *어린이미디어연구*, Vol.2, pp.1-17, 2003.
- [10] F. Ryan, “Have computers forced handwriting out of the picture?,” *Journal of Education World*, from http://www.educationworld.com/a_curr/curre241.shtml, 2000.
- [11] 최미셀, “인터넷 도구와 소프트웨어 활용 쓰기 학습”,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3호, pp.343-348, 2013.
- [12] 정해동, “뇌성마비 아동의 쓰기 평가 및 특성에 관한 고찰”,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5권, 제2호, pp.115-133, 2004.
- [13] M. Anne and L. V. Jean, “Handwriting is beneficial to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Journal of FYI Living*, 2011.
- [14] R. J. Peper and R. E. Meyer, “Generative effects of note-taking during science lectur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78, No.1, pp.34-38, 1986.
- [15] M. L. Joanne and R. B. Keith, “Factors affecting handwriting,” *Journal of Family Education*, 1999.
- [16] A. Lipsett, “Emphasis on neat handwriting stifles creativity, says research,” *Journal of Education Guardian*, Vol.12, No.14, 2007.
- [17] 소년 한국일보, *앞서가는 우리학교 행복한 배움터: 서울 후암 초등학교*, <http://kid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news/200809/kd2008092314330077120.htm&ver=v0022013>, 2008.
- [18] 김은영, 박승호, “노트 필기훈련이 여자대학생의 학습전략, 주의력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제24권, 제3호, pp.525-543, 2010.
- [19] 전명남, “높은 학업성취 대학생의 학습전략과 수행분석”, *교육심리연구*, 제17권, 제4호, pp.1-28, 2003.
- [20] K. A. Kiewra and H. J. Fletcher, “The relationship between levels of note-taking and achievement,” *Human Learning*, Vol.3, pp.273-280, 1984.
- [21] S. W. Vander Stoep and P. R. Pintrich, *Learning to learn: The skill and will of college success*, NJ: Prentice Hall, 2007.
- [22] Medwell, J., & Wray, D, “Handwriting: what do we know and what do we need to know?,” *Literacy Volume*, Vol.41, pp.10-11, 2007.
- [23] 권나무, “지식을 구하는 지식에 대한 고민-공책 활용이 고기 낚는 법이 될 수 있는가”, *초등우리 교육*, Vol.145, pp.122-124, 2002.
- [24] V. W. Berninger and H. L. Swanson, *Modifying Hayes and Flower’s model of skilled writing to explain beginning and developing writing*. In E. C. Butterfield & J. S. Carlson(Eds.), *Children’s writing: toward a process theory of the development of writing skill*, Greenwich, CT: JAI, pp.31-56, 1994.
- [25] 임지룡, “영어: 영국의 국가교육 과정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학회*, pp.75-94, 2002.
- [26] 조선일보, “글씨노트 40년 고집 한신초:아이들이

- 차분해져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15/2011081500230.html, 2011.
- [27] A. D. Sandler, T. E. Watson, M. Foot, M. D. Levine, W. I. Coleman, and S. R. Hooper, “Neurodevelopmental study of writing disorder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Developmental & Behavioral Pediatrics*, Vol.13, pp.13-17, 1992.
- [28] H. Cornhill and C. J. Smith, “Factors that relate to good and poor Handwriting,” *Th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50, pp.732-739, 1996.
- [29] 양영애, 이선명, “시지각 능력과 필기속도와와의 관계”, *대한건강과학학회*, 제3권, 제1호, pp.46-60, 2006.
- [30] R. Kipling, Assessment: Defining needs and problems, In D. E. Penso(Eds), *Keyboard, graphic and handwriting skills: Helping people with motor disabilities*. London: Chapman & Hall, pp.23-45, 1990.
- [31] D. Thomas, First steps towards handwriting, graphic and keyboard skills. In D. E. Penso(Ed). *Keyboard, graphic and handwriting skills: Helping people with motor disabilities*. London: Chapman & Hall, pp.11-22, 1990.
- [32] 유구중, 정봉숙, “쓰기활동 방법에 따른 유아의 쓰기발달과 자아개념: 컴퓨터로 쓰기와 연필로 쓰기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제9권, 제3호, pp.119-148, 2004.
- [33] 박한숙, “학습기술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노트 필기 기술”, *부산교육학연구*, 제15권, 제1호, pp.95-123, 2002.
- [34] B. B. Armbruster, Taking notes from lectures. In R. F. Flippo and D. C. Caverly(Eds.). *Handbook of college reading and study strategy research*.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0.
- [35] 이익수, “지각된 판광지 이미지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2호, pp.423-431, 2009.
- [36] 이수원, “태도에서 감정과 인지성분의 측정”, *심리학의 연구문제*, 제3권, pp.161-191, 1988.
- [37]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12.
- [38] R. A. Krueger, “Designing and conducting focus group interviews,” [http://www.comm.umn.edu/~akoerner/courses/5431-S10/Krueger FocusGroupInterviews.pdf](http://www.comm.umn.edu/~akoerner/courses/5431-S10/Krueger%20FocusGroupInterviews.pdf), 2002.
- [39] K. T. Judi and P. Franklynn, *Note-taking Made Easy*, Contemporary Books Inc. Chicago, 2003.
- [40] 손정란, “노트 필기 전략 훈련이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강의 듣기에 미치는 효과”, *한국응용언어학회*, *응용언어학*, 제25권, 제1호, pp.1-26, 2009.
- [41] 김춘화, “학생들의 수업필기에 중시를 돌린 소감”, *중국조선어문*, 제11권, pp.54-55, 2007.
- [42] 최윤경, “인터넷 중국어 강의에서 노트 필기 과정의 효과성 검증”, *한국중국어교육학회*, 제17권, pp.293-311, 2013.
- [43] 정미경, “대학생용 자기조절학습 검사도구 개발”, *교육평가연구*, 제18권, 제3호, pp.155-181, 2005.
- [44] F. Pajares and G. Valiante, “Gender difference in writing motivation and achiev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A function of gender orient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Vol.26, pp.366-388, 2001.
- [45] 박영민, 문광진, “중학생 쓰기 동기의 수준 및 변화 양상 분석”, *한국작문학회: 작문연구*, 제9권, pp.95-121, 2009.
- [46] 이재승, 신현재, 임천택, 전제웅, “초등학생용 쓰기 동기 검사 도구 개발과 활용방안”, *청람어문교육*, 제34권, pp.129-159, 2006.
- [47] 박영민, “중학생 쓰기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학연구*, 제26권, pp.337-369, 2006.

- [48] F. Pajares and G. Valiante, "Writing self-efficacy and its relation to gender, writing motivation, and writing competence: a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G. Rijlaarsdam, P. Boscolo, & S. Hidi. Writing and Motivation, Oxford: Elsevier, pp.141-159, 2007.
- [49] 곽한영, 김주영, "교칙에 대한 태도가 고등학생의 준법행위에 미치는 영향", 법교육연구, 제8권, 제1호, pp.1-30, 2013.
- [50] S. N. Srihari, "Online and off-line handwriting recognition: a comprehensive survey,"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IEEE computer society, Vol.22, pp.63-84, 2002.
- [51] 이광오, "한글 필기 행동의 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제15권, 제2호, pp.1-15, 1994.

저 자 소 개

정 민 선(Min-Seon Jeong)

정회원



- 2008년 2월 : 학점은행제 경영학과(경영학 학사)
- 2014년 2월 : 동국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관심분야> : 필기, 교수방법, 동기

신 나 민(Namin Shin)

정회원



- 1992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 1994년 8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1년 8월 :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교육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원격교육, 학습공간, 사이버블링